

인문계열 남자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분석*

김애희** · 윤종희*** · 김리진****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고 남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서울 소재 인문계고 남학생 282명을 대상으로 설문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독립변인은 총 21개로 유기체 변인 8개(자기유능감, 대인관계기술, 내적통제감,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미시체계 변인 9개(학교변인-교사 관계, 수업과 학습, 교실분위기, 학교복지시설, 학교주변환경, 친구 변인-교우관계, 가족변인-가족기능성, 부학력, 가족경제적수준), 중간체계 변인 2개(부모-교사관계, 부모-자녀의 친구관계), 외체계 변인(한국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 거시체계 변인(학벌지상주의의 지지정도)이다. 분석결과, 교사와 관계, 한국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 교우관계, 부모-교사 관계, 학벌지상주의의 지지정도, 학교복지시설, 자기유능감 순위로 7개 변인이 유의하였다($R^2=51.2\%$). 미시체계의 영향력이 39.4%로 가장 컸다.

주제어 :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 학교생활만족도, 생태체계 변인

* 본 논문은 김애희(2007)의 연구모형을 수정하여 재분석한 것임.

** 한국영재교육원 원장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 MB심리인지연구소 부소장

I. 서 론

급변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생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한편, 어떠한 현실이든 일단 자신이 처한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익히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이러한 방법을 익히고 배우게 된다. 청소년기의 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또래나 교사 외에 선후배와 관계를 맺으며 사회생활에 대한 지식과 적응패턴을 습득한다. 고등학교는 대학 생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며, 이후 성인기에 사회로 활동영역을 넓히는 접점이 되기도 하는 중요한 성장환경이다.

교육학편찬위원회(1992)에 따르면, 학교생활의 구성요소가 학생과 교사를 주축으로 학생-교사 관계, 학생 상호간의 관계, 학급활동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 학업, 또래관계, 교사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실연하고 만족스럽게 적응하는 방법을 익히는 중요한 경험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1,493개의 인문계열 고등학교와 전공에 따라 세분화된 132개의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다¹⁾. 하지만 인문계열 고등학교가 수적인 우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특히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선행연구의 대다수가 탐색적 또는 기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설사 설명적 연구라 해도 관련 변수들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 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다(김미경, 2000; 김세환, 2005; 서동식, 2002; 유상구, 2000). 조사대상을 달리한 이들 선행연구는 자기 유능감(김미경, 2000), 대인관계기술(이은재, 2003), 내적 통제감(이은재, 2003), 정서 관련 변인(김병옥, 2005; 김영미, 2005; 서동식, 2002; 이은영, 2004)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들 유의한 변수 위주로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학교생활만족도는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활동 등에서 학생들이 자기육구를 합리

1) 특목고는 전국적으로 과학(20개), 외국어(30개), 예술(24개), 체육(15개), 공업(22개), 농업(10개), 수산(5개), 해양(2개), 국제(4개) 등 여러 형태로 나뉜다(www.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보·통계자료, 2008년).

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주변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이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따라서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생의 성격특성 외에도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다른 구성원간 관계나 주변 환경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 간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거나 인과관계 모형의 설명력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찾을 수 없었다. 인간의 발달이나 삶의 질에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론과 방법론적인 한계 때문인지 이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의 고찰 결과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조사대상자의 성별이다. 2차 성징의 출현이 이미 시작된 고등학교 시기는 남녀 학생 간 성격형성과 변화에 대한 적응에서 성별 차이가 클 것이다(정옥분, 2002). 윤미정(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대처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최수열(2008)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육프로그램 참여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남혜진(2007)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인관계형성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기의 성별에 따라 여학생과 남학생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다. 여고생의 자아 존중감, 우울성향, 또래 동조성 등과 관련된 연구(김행미, 2005)나 또래 상담 훈련을 통한 여고생의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도(이경자, 2002)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남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성격형성이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주환숙(2007)이나 박미경과 문혁준(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부모의 지지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의 환경적 특성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부모의 특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부의 학력수준과 경제력이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 변수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대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간 관계나 주변 환경과 맺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는 설명모형도 이러한 내용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유의한 변수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생태학 이론을 적용하여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모형을 제안하고 이의 설명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문계열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관심이 저조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설명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규명된 관련 변수들이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맞춤형 개별프로그램의 핵심 변수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학교생활만족도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활동 등에서 자기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주변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로 학교생활에 대하여 견지하고 있는 '긍정적인 느낌, 감정, 태도'(김미경, 2000), 또는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 일종의 태도'(유상구, 2000)이며 '(학교)생활의 실제와 기대간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개인적 현상'(유상구, 2000)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교사 및 교우 관계, 교실분위기, 수업과 학습, 학교 및 주변 환경의 복지시설을 포함한 학교생활 및 다차원적인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 전반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를 말한다.

다음에서는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일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모두 고찰하여 선정된 독립변인들을 인간발달의 생태학 이론이 정의

하는 생태체계에 의거해 분류하고자 한다. Bronfenbrenner(1983)의 인간발달생태학은 인간과 사회문화적 환경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분석적이고 통합적 조망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연구 모형이다. 인간발달생태학 모형에서는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유기체인 인간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를 점구조 모형인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로 개념화하고 있다(윤종희, 2001). 이와 같은 개념 모형은 유기체와 주변 환경 간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조절과정에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유기체 및 생태체계별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첫째, 본 연구의 유기체 변인은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자기유능감, 대인관계기술, 내적통제감, 정서지능(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됨) 변인을 선정하였다.

자기유능감(self-efficacy)은 특정 산물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김미경, 2000)인데, 이는 학교적응의 과업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학습동기, 인지적 자원, 그리고 학교환경의 요구라는 삼자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자기유능감을 포함한 자아개념과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경, 2000; 박현선, 1998).

갈등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기술을 일컫는 대인관계기술(이은재, 2003)은 청소년 발달이나 학교적응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대인관계기술은 비행과는 부적인 상관(박현선, 1998), 또래나 교사와 관계와는 정적인 상관(이은재, 2003)이 있어, 학교생활적응(박현선, 1998)이나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와도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재, 2003).

통제감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어디에 귀인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내적통제감은 자신의 활동이 보상을 결정한다고 믿는 것인 반면, 외적통제감은 자신의 활동과 보상 간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과정 도시형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은재(2003)의 연구에서는 내적통제감과 학교생활만족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적통제감은 학교생활에서 행해지는 자신의 행동과 상황, 그리고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아 선정하였다.

Ciarrochi, Forgas와 Mayer(2005)에 의하면, 정서지능은 정서의 의미와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추론하며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학교에서 또래와

교사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감정을 해결하고 생활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정서지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졌다(김병옥, 2005; 김영미, 2005; 김현영, 2006; 박재현 외, 2005: 34-68; 서동식, 2002; 이은영, 2004).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변인을 학교생활 만족도 측정에 직접 관련짓기보다는 자아실현이나 일반적 인 만족감(박재현 외, 2005: 34-68), 학교생활적응(서동식, 2002; 이은영, 2004)과 학업 성취도(이은영, 2004)와 정적인 상관이 있음과,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대리양육(시작 시기와 유형)이 정서지능에 차이를 가져옴(김영미, 2005)을 밝혔다.

둘째, Bronfenbrenner(1983)의 미시체계는 유기체에게 가장 “인접한(proximal level)” 환경이다. 미시체계의 상호작용유형은 가장 “인접한 과정(proximal processes)”이며 유기체가 직접 경험하는 활동, 역할, 대인관계 유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의 미시체계로 학교, 친구와 가족을 선정하였다. 학교 미시체계 변인은 교사와 관계, 수업과 학습, 교실분위기, 학교의 복지시설, 학교주변환경을, 친구 미시체계 변인은 교우관계를, 그리고 가족 미시체계 변인은 가족기능성, 아버지 학력,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선정하였다.

교육심리학을 통해 널리 알려진 ‘피그말리온 효과’는 교사의 기대수준에 따라 학생의 성취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교사의 관심어린 시선과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학생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학습태도가 변하고 적극적인 모습까지 보이며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는 학생이 되려고 한다는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의 내용을 밝힌 성미옥(2003)의 연구 결과와 더불어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생-교사 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김미경, 2000; 김세환, 2005). 심지어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두는 가장 큰 요인이 교사와의 관계라는 보고도 있다(Madden & Madden, 2001). 교사-학생 관계는 공식적으로 학습을 위한 관계이지만 학생은 학습을 통해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되는 결과에 직면하기 때문이다(김세환, 2005).

수업과 학습 내용은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민응규, 2001;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2006). 적은 수의 과목을 깊이 다룰수록(민응규, 2001), 시설과 설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민응규, 2001), 학생의 요구에 맞춰 개발된 교과 내용을 공부할 때(서울시 대안교육센터, 2006) 만족도가 높다.

교실 분위기는 만족스러운 교우관계가 형성될 때 화목해짐을 밝힌 연구(이현주,

2002)나 효과적인 학습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학생의 관점, 즉 사용자 관점에서 학교 시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김은덕, 1993)은 학교생활만족도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물리적 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시설은 구성원에게 교육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활동의 능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김세환, 2005; 이진명, 1985). 김미경(2000)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생활만족도와 학교 주변 환경이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래 집단과의 교우관계가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많다. 고등학생들은 하루 8-10시간 이상을 인위적으로 꾸며진 학급에서 생활하면서 교우관계가 학교생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김세환, 2005). 또한 교우 관계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또래수용도가 높고, 상호이익적인 관계를 가지는 성향의 청소년들이 자아 존중감이 높고 학교생활도 잘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가족요인 중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족관계는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변인이다. 자녀들은 부모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통하여 신뢰감, 애착, 동일시, 사회화, 성역할, 자아개념 및 자아 존중감 등을 발달시킨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가족간 상호작용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가족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소혜, 1995).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련 변인으로 가족을 하나의 역동적 개방체계로 보는 Olson(1986)의 가족체계이론을 기초로 가족구성원 간 관계와 가족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반영한 가족기능성을 선정하였다(윤종희, 김리진 하수민, 2006).

셋째, Bronfenbrenner(1983)의 중간체계는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망이다. 중간체계는 성장하는 유기체를 포함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미시체계 간에 일어나는 연결점과 상호작용 과정으로 구성된다(윤종희, 2001). 예를 들어, 청소년 이 속한 다수의 미시체계간 상호작용, 즉 가족 미시체계와 학교 미시체계 간 교류는 부모-교사 관계로, 또 가족 미시체계와 친구 미시체계 간 교류는 부모-자녀의 친구 관계로 구체화 될 수 있다.

주지된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학업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취에 가치를 두고 자녀의 정서적 독립을 격려하는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높은 학업 성취와 높은 포부 수준을 갖게 한다(Coopersmith, 1967). 청소년 자녀에게 수용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해주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불안

유발적인 경험을 했을 때 완충 역할을 한다. 부모가 교사를 통해 자녀의 학교와 가정 생활의 문제점을 상담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자녀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런 염려 때문에 자녀의 친구관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 자신이 자녀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한다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넷째, Bronfenbrenner(1983)의 외체계는 유기체가 거주하는 환경 범위보다 좀 더 큰 광역의 지역사회 환경체계가 끼치는 영향력이다. 외체계는 유기체에게 직간접적으로 일방적인 영향을 미칠 뿐, 유기체는 외체계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윤종희, 200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느끼는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외체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초중고대학까지 6-3-3-4 학제를 도입하고 있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나 고등학교 이상의 진학은 선택이다. 고교과정은 일반고, 실업고, 특수 목적고로 나누어진다. 특수 목적고의 입학 경쟁은 물론 대학진학 경쟁 또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치열하다²⁾. 이러한 제도적 결정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만족도는 학교생활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다섯째, Bronfenbrenner(1983)의 거시체계는 유기체에 대해 직접적 개입은 없으나, 보이지 않는 아치처럼 사회전체를 우산처럼 덮고 있는 기존 문화, 신념체계, 자원, 생활양식, 기회구조, 발달상의 선택권과 위협요인, 상호작용 유형을 말한다. 거시체계는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어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나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경체계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종희,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벌 지상주의에 대한 지지정도’를 거시체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김신일(1999)은 우리 사회가 교육기회의 제한과 학력-취업-지위의 연계로 학력사회가 형성됐음을 지적하면서, 학벌이 사회적 지위와 부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적시하였다. 이러한 학벌지상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청소년기 대부분을 대학 입시공부에 바친다. Bronfenbrenner(1983)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집계한 2009학년도 수능 응시자수는 559,475명이나 대학입학정원은 259,120명이다(www.mest.go.kr).

에 의하면 거시체계의 사회문화적 흐름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거시체계의 학벌 지상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대상자 선정은 서울소재의 인문계열 남자고등학교를 선정하여 목적성 있는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을 하였다³⁾. 자료수집은 해당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담임교사가 회수하여 우편으로 전달 받았다. 본 조사에 앞서 1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pilot study를 실시하여 문항 내용, 응답 소요 시간, 편집 형식, 설문지 길이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300부를 배부하여 그중 중 282부(회수율 94%)를 회수하였다⁴⁾. 일부 무응답 문항은 해당 문항만 결측 처리하였고, 부실 기재로 폐기한 설문지는 없다.

3) 서론에서 제안한대로 부모 학력 및 가족생활수준의 편차가 비교적 안정적인 집단이라고 사료되는 서울소재 남자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관련변수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목적성있는 임의표집을 하였다. 이러한 표집의 결과는 대상자 특성(표2) 및 연구결과(표4-5)에 반영되어 있다. 즉 대상자 특성에서 부의 학력이 87%가 대졸이상이었으며, 가정생활수준은 98%가 중상류층 이상이었다.

4)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수는 “일반적으로 회귀분석모델의 독립변수의 수는 표본크기의 십분의 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Agresti & Finlay, 1984, p.375). 즉 본 연구에서는 21개 독립변수가 있으므로 응답율을 고려하여 300부를 배부하여 최소한 210명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였다.

2. 측정 도구

<표 1> 측정 도구

연구 내용	점수범위	비고	신뢰도		
			타연구	본연구	
종속 변인	11	5점리커트	김미경(2000)의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 높음		
유기체	6	4점리커트	박현선(1998)이 Hernandez와 Sherer의 척도 수정 보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향 높음		
	7	4점리커트	박현선(1998)이 Schlein & Guemey의 대인관계 변화 척도를 수정·보완한 전 석균(1994)의 것에서 선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성향 높음		
	6	4점리커트	박현선(1998)이 Alva의 Youth Coping Scale을 수정 보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성향 높음		
	정서 지능	8	4점리커트	Salovey와 Mayer 척도를 문용린(1997)이 청소년용 지능 검사로 제작.	
		7	4점리커트	정서활용 점수 범위는 두 단계로 ①=2점, ②=0점,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성향 높음	
		7	4점리커트		
		15	4점리커트		
		10	2개		
	미시 체계 (학교)	6	5점리커트	김미경(2000)의 척도 ⁵⁾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항목 좋음	
		5			
		5			
		5			
		3			
	미시 체계 (친구)	6			
	미시 체계 (가정)	10	5점리커트	Olson, Portner, & Lavee (1986)의 두 단계로 ①=0점, ②=1점 처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가능성 높음	
		10			
		1			
1					
중간 체계	1	5점리커트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 좋음		
	1	5점리커트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 좋음		
외체계	2	5점리커트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 높음		
거시 체계	2	5점리커트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정도 높음		

각 변인별 측정 도구는 지면 관계 상 <표 1>에 정리하였다. 문항 수, 척도의 유형, 점수 범위, 척도 제작자, 해석 방법, 본 연구와 타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순서로 기술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오류 검토 작업을 거쳐 SPSS Win 15.0을 이용하여 세 단계의 분석 과정을 통해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학교생활만족도와 각 체계변인별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생태체계별 변인들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의 변인군을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유의한 변수를 규명하고 설명력의 증가를 보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의한 변인들 간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고 가장 강력한 모형을 찾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과 변인의 실태분석

목적성 있는 유의표집으로 선정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인문계열 남자고등학교 282명으로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5) 내적합치도가 0.8이상이면 매우 높은 신뢰도이고, 0.6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신뢰도이다(김병신, 김계수, 1998, p.228).

<표 2>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괄호 안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연령		아버지 학력		생활수준		아버지의 직업		가족 형태	
구분	n(%)	구분	n(%)	구분	n(%)	구분 ⁶⁾	n(%)	구분	n(%)
16이하	150(53)	중졸이하	4(1)	상	23(8)	1	1(0)	양친 이혼 편부 편모 고아	256(91) 10(4) 3(1) 6(2) 3(1)
17	116(41)	고졸	32(12)	중상	97(34)	2	7(3)		
18	16(6)	대졸	171(63)	중중	137(49)	3	22(8)		
		대학원졸	65(24)	중하	15(5)	4	15(6)		
				하	5(2)	5	111(40)		
						6	69(25)		
						7	27(10)		
						8	5(2)		
						9	18(7)		

전원 집에서 통학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학력 수준은 87%가 대졸 이상이었고, 가족의 생활수준은 중류층 이상이 98%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9인 이하의 업체나 상점 경영자'가 40%, '기업체 경영주, 기업체 간부, 5급 이상 공무원'은 25%, '의사, 판검사, 연구자, 회계사, 방송인, 종교인'은 10%로, 자영업자이거나 화이트칼라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가족 형태는 양친가족이 91%였고,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은 10% 미만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학교생활만족도와 생태학적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종속변인인 학교생활만족도 평균은 2.88(SD=.83)로 보통 수준이었다. 유기체 변인 중 자기유능감, 대인관계기술,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은 보통 수준이하이거나 보통에 가까웠고, 내적통제감과 정서인식은 보통 이상이었으며, 정서활용은 매우 낮았다⁷⁾.

6) ①행상, 수위, 파출부, 청소원, 일일노동자, 무직 ②생산 감독자, 기능근로자, 운전사, 선박 승무원
 ③서비스(상점, 음식점, 이발소, 미장원) 종사자, 일반판매직
 ④개인택시 운전사, 9인 이하의 업체나 상점의 경영자
 ⑤회사원, 은행원, 교사, 공무원, 일반기술직(기사), 간호사, 약사
 ⑥기업체 경영주/소유주, 기업체 간부, 고급 공무원(5급이상)
 ⑦의사, 판검사, 변호사, 교수, 연구자, 회계사, 언론방송인, 종교인 ⑧주부 ⑨기타
 7) 정서활용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득점범위는 0점에서 20점 사이이다. 그렇다(2점)와 그렇지 않다(0점)로 답변한다 [표 1 참조].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

항목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종속 변인	학교생활만족도	2.88	.83		
	유기체변인	자기유능감	2.76	.61	
		대인관계기술	2.98	.43	
		내적통제감	3.17	.53	
		정서지능	정서인식	3.25	.52
			정서표현	2.60	.64
			감정이입	2.67	.50
정서조절	2.91		.49		
정서활용	5.18	2.37			
독립 변인	미시체계변인 (학교)	교사와의 관계	2.71	.71	
		수업과 학습	3.13	.62	
		교실분위기	3.49	.72	
		학교의 복지시설	3.20	.78	
		학교 주변 환경	4.05	.87	
	미시체계변인(친구)	교우관계	3.26	.58	
	미시체계변인(가족)	가족기능성	11.53	.27	
	중간체계변인	부모-교사관계	2.11	.98	
		부모-친구관계	2.34	1.05	
	외체계변인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	2.67	.82	
	거시체계변인	학벌지상주의의 지지 정도	3.76	.94	

미시체계 학교 변인 중 교실분위기와 학교주변 환경은 보통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사와 관계와 학교복지시설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체계 가족변인인 가족기능성은 11.53(SD=.27)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체계변인인 부모-교사관계와 부모-자녀 친구관계는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에 가까워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사 및 자녀의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체계 변인인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2.67(SD=.82)로 보통에 못 미쳤으며, 거시체계의 변인인 학벌지상주의의 지지 정도는 3.76(SD=.94)으로 학벌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였다.

2.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세 단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중공선성이 있는 독립변인을 확인한 후, 유기체(8개), 미시체계(학교변인 5개, 친구변인 1개, 가족변인 3개), 중간체계(2개), 외체계(1개), 거시체계(1개) 변인을 각각 하나의 독립변인 군으로 묶어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여 모델 I · II · III · IV · V를 거치면서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독립변인 군의 설명력을 알아보았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분석에서 파악된 유의한 변수를 중심으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의 조합을 찾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인 회귀분석 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독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존재 가능성을 살펴 본 결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는 3.452 이하, Durbin-Watson 계수는 모델별로 1.789-1.816으로 다중공선성이 있을 만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⁸⁾.

두 번째 단계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생태체계별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정리하였다.

모델 I은 유기체 변인의 영향력이다. 이는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의 17.9%($R^2 = .202$, $p < .001$)를 설명하였다. 자기유능감($\beta = 0.212$, $p < .01$), 내적통제감($\beta = 0.188$, $p < .01$), 정서인식($\beta = -0.174$, $p < .01$), 정서조절($\beta = 0.160$, $p < .05$)과 정서활용($\beta = 0.115$, $p < .05$)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 II은 모델 I에 미시체계(학교, 친구, 가족) 변인을 추가한 것으로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의 42.9%($R^2 = .466$, $p < .001$)를 설명하였다. 모델 I의 내적통제감, 정서조절, 정서활용 변수는 제외되고, 자기유능감($\beta = 0.121$, $p < .05$), 교사관계($\beta = 0.410$, $p < .001$), 교우관계($\beta = 0.223$, $p < .001$)가 유의한 변수로 밝혀졌다. 교사와 관계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으로 교우관계, 수업과 학습, 정서인식(부적 상관),

8) 일반적으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계수는 4 이하, DW(Dubin-Watson) 계수는 2에 가까우면 인접한 오차항들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우면 정적인 자기상관이 높고, 4에 가까우면 부적인 자기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김리진, 2000).

자기유능감의 순서로 학교생활만족도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 변인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일반고교 남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변인	모델(I) 유기체		모델(II) 미시체계		모델(III) 중간체계		모델(IV) 외체계		모델(V) 거시체계	
	<i>b</i>	β	<i>b</i>	β	<i>b</i>	β	<i>b</i>	β	<i>b</i>	β
(유기체 변인)										
-자기 유능감	.287	.212**	.164	.121*	.153	.114	.177	.132*	.210	.156**
-대인관계 기술	.051	.027	.051	.027	.016	.009	-.018	-.009	-.007	-.004
-내적 통제감	.292	.188**	.081	.052	.100	.063	.048	.030	.023	.015
-(정서 지능)										
정서인식	-.273	-.174**	-.160	-.102	-.144	-.093	-.155	-.100	-.135	-.087
정서표현	.072	.056	-.028	-.021	-.001	.001	.039	.030	.036	.027
감정이입	-.205	-.125	-.066	-.040	-.066	-.040	-.012	-.008	.032	.019
정서조절	.267	.160*	.109	.065	.100	.060	.091	.055	.022	.013
정서활용	.040	.115*	.002	.007	-.005	-.013	-.005	-.013	.002	.007
(미시체계-학교)										
-교사와의 관계			.476	.410***	.409	.355***	.356	.308***	.343	.297***
-수업과 학습			.130	.098	.142	.105	.099	.073	.103	.076
-교실분위기			.029	.024	.040	.034	.050	.042	.078	.066
-학교의 복지시설			.063	.060	.063	.059	.094	.088	.114	.107*
-학교 주변 환경			-.114	-.119	-.083	-.086	-.047	-.048	-.075	-.077
(미시체계-친구)										
-교우 관계			.321	.223***	.348	.245***	.346	.243***	.288	.203***
(미시체계-가족)										
-가족기능성			.010	.056	.009	.052	.002	.009	.001	.005
-부학력			-.011	-.008	-.019	-.015	-.001	.000	-.016	-.013
-가족경제적수준			.066	.063	.092	.087	.082	.078	.098	.093
(중간체계 변인)										
-부모-교사관계					.135	.160**	.121	.143**	.116	.138**
-부모-친구 관계					-.002	-.003	.002	.003	.007	.009
(외체계 변인)										
-한국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							.253	.253***	.218	.218***
(거시체계변인)										
-학벌지상주의의 지지 정도									.163	.184***
상수	1.263		-.522		-.784		-1.377		-1.748	
R ²	.202		.466		.478		.528		.555	
Adjusted R ²	.179		.429		.435		.487		.514	
(F)	8.565***		12.619***		11.091***		12.775***		13.473***	

p*<.05 *p*<.01 ****p*<.001

모델 III는 모델II에 중간체계 변인(부모-교사관계, 부모-자녀 친구관계)을 추가한 것이다. 이 모델은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의 43.5%($R^2 = .478$, $p < .001$)를 설명하였다. 모델II의 유기체 변인의 영향력은 모두 사라지고, 부모-교사관계($\beta = 0.160$, $p < .01$)가 유의한 변수로 추가되었다. 모델II와 마찬가지로 교사와 관계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으로 교우관계, 부모-교사관계, 수업과 학습의 순서였다.

모델IV는 모델 III에 외체계 변인(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을 추가한 것이다. 모델IV의 설명변량은 48.7%($R^2 = .528$, $p < .001$)이다. 자기유능감($\beta = 0.132$, $p < .05$), 교사와의 관계($\beta = 0.308$, $p < .001$), 교우관계($\beta = 0.243$, $p < .001$), 부모-교사 관계($\beta = 0.143$, $p < .01$),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beta = 0.253$, $p < .001$)가 유의한 변수로 밝혀졌다. 모델 IV에서도 모델III와 마찬가지로 교사와 관계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두 번째로 외체계 변인인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 세 번째로 교우관계, 그 다음으로 부모-교사 관계, 자기유능감, 학교의 복지시설의 순서였다. 모델 IV에서는 모델III과 동일한 변수들에 자기유능감과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변수로 추가되었다.

모델 V는 모델IV에 거시체계 변인(학벌지상주의의 지지 정도)을 추가한 것으로, 이 모델은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51.4%($R^2 = .555$, $p < .001$) 설명하였다. 새로운 거시체계 변인인 학벌지상주의에 대한 지지정도($\beta = 0.184$, $p < .001$)가 유의한 변수로 추가되었고, 자기유능감($\beta = 0.156$, $p < .01$), 교사와의 관계($\beta = 0.297$, $p < .001$), 학교의 복지시설($\beta = 0.107$, $p < .05$), 교우관계($\beta = 0.203$, $p < .001$), 부모-교사 관계($\beta = 0.138$, $p < .01$), 한국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beta = 0.218$, $p < .001$)가 유의한 변인으로 남았다. 모델 V에서도 모델IV와 마찬가지로 교사와 관계가 가장 강력했으며, 두 번째로 외체계 변인인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 세 번째로 교우관계, 그 다음으로 거시체계 변인인 학벌지상주의에 대한 지지정도, 부모-교사 관계, 자기유능감, 학교복지시설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상과 같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생태체계 변인이 모두 투입되어 8개 변수의 유의성이 나타난 모델 V의 설명력이 51.4%로 가장 컸다. 그리고 5개 모델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11개의 변인이 분석대상 체계의 수준에 따라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체에서 자기유능감·내적통제감·정서인식·정서조절·정서활용, 미시체계에서 학교변인인 교사

와 관계·학교의 복지시설, 친구변인인 교우관계, 중간체계에서 부모-교사관계, 외체계에서 한국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 거시체계에서 학벌지상주의의 지지정도이다.

마지막 분석인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모델 I에서 모델 V에 이르는 5개 모델 검증에서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상기 11개 독립변인을 중심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분석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교사관계($\beta=.301, p<.001$), 한국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beta=.236, p<.001$), 교우관계($\beta=.211, p<.001$), 부모-교사 관계($\beta=.165, p<.01$), 학벌지상주의의 지지정도($\beta=.157, p<.01$), 학교복지시설($\beta=.132, p<.05$), 자기유능감($\beta=.135, p<.01$)의 순서로 7개 변인이 추출되어 전체 분산의 51.2%를 설명하였다($F=40.437, p<.001$).

<표 5>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학교생활만족도		
			b (t 값)	β	ΔR^2 (Δ Adjusted R^2)
0			-1.422 (-4.609)		
1	교사 관계		.344 (5.859)	.301	.323 (.320)
2	한국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		.237 (5.017)	.236	.070 (.068)
3	교우 관계		.297 (4.429)	.211	.065 (.063)
4	부모-교사 관계		.139 (3.460)	.165	.023 (.021)
5	한국적 학벌지상주의의 지지정도		.138 (3.390)	.157	.017 (.015)
6	학교의 복지시설		.140 (2.978)	.132	.012 (.011)
7	자기유능감		.180 (2.896)	.135	.016 (.014)
R ²			.525		
Adjusted R ²			.512		
F			40.437***		

* $p<.05$ ** $p<.01$ *** $p<.001$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와 최종적으로 유의하다고 밝혀진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풀이해보면, 학생 스스로 유능하다고 지각하고, 교사·교우·부모-교사 관계가 만족스러우며, 학교 복지시설·교실분위기가 좋고, 한국 교육제도에 대해 만족하며, 학벌지상주의를 지지할수록 학교생활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의 51.2%를 설명하는 독립변인군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생태학적 관점으로 재분석하면, 유기체 변인인 자기유능감이 1.4%, 미시체계 학교변인인 교사 관계, 학교복지시설이 33.1%, 미시체계 친구변인인 교우관계가 6.3%, 중간체계 변인인 부모-교사 관계가 2.1%, 외체계 변인인 한국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6.8%, 마지막으로 거시체계 변인인 학벌지상주의의 지지 정도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시체계 학교변인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체계와 미시체계 친구변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학교와 친구변인의 영향력을 합한 미시체계의 총 영향력은 39.4%로 전체 설명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치상으로도 유기체 자신의 영향력은 물론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의 영향력을 압도하고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연구로 수행되었으며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 282명을 목적성 있는 유의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일반적인 경향과 변인별 실태분석 결과 첫째, 서울시 서초구 소재 중류층 가정의 인문계열 남자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는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자기유능감도 보통이하로 나타났으며, 정서지능과 대인관계기술은 보통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물리적 환경인 수업과 학습, 교실분위기, 학교주변 환경은 평균 이상으로 양호하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교우관계도 대체로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성은 보통 수준이었다. 반면, 교사와 관계, 학교복지시설에 대한 인식, 부모-교사 관계, 부모-자녀의 친구관계는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남자고등학생들이 한국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지만, 학벌 지상주의 즉 학벌에 대한 지지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학교변인, 미시체계 친구변인, 미시체계 가정변인, 중간체계 변인, 외체계 변인, 거시체계 변인 등 총 21개 변인을 생태체계별 독립변인 군으로 묶어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기체 변인 군과 모든 체계변인 군을 투입하여 8개의 유의한 변수를 추출한 모델 V의 설명력이 5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델 I에서 모델 V에 이르는 위계적 회귀분석 5단계를 통해 유의한 영향력이 밝혀진 13개의 변인(자기유능감, 내적통제감, 정서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 교사와의 관계, 수업과 학습, 교실분위기, 학교의 복지시설, 교우관계, 부모-교사 관계, 한국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 학벌지상주의의 지지정도)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순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 V에서 밝혀진 동일한 8개 변인이 동일한 52.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향력의 순위는 모델 V와 다소 차이가 있어 교사와 관계, 한국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 교우관계는 동일하였지만, 부모-교사 관계, 학벌지상주의의 지지정도, 학교복지시설, 자기유능감, 교실분위기로 이어지는 순위는 다소 달랐다.

넷째, 이상의 회귀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를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이 속한 생태체계별로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재해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총설명력 52.6% 중에서 유기체 변인인 자기유능감은 1.5%를 설명하는데 그쳤다. 미시체계 학교 변인인 교사관계, 교실분위기와 학교복지시설은 35%를 설명하였는데, 거기에서 미시체계 친구 변인인 교우관계의 6.5%를 더하면 미시체계의 총 설명력은 41.5%에 달하였다. 중간체계 변인인 부모-교사 관계가 2.1%, 외체계 변인인 한국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6.8%, 거시체계 변인인 학벌지상주의의 지지 정도가 1.5%를 설명하였다. 인문계열 남자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는 모든 환경체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미시체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최종 회귀분석에서 8개의 유의한 변수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가 교사와 관계였으며,

세 번째로 영향력이 큰 변수가 교우관계였다. 두 관계 변수를 합한 영향력은 총 39%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교사 및 교우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면서도 성장 발달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개인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래 집단 및 교사와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김미경, 2000; 김세환, 2005; 이은재, 2003;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와 일치한다.

교사나 교우관계를 향상시키는 미시체계 개입에 덧붙여 또 다른 미시체계 변인인 학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실 분위기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유기체인 학생들에게는 자기유능감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중간체계 변인인 부모-교사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한 제고와 학벌지상주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체계나 거시체계의 변화는 그 속성상 특정 학교나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단기적 노력으로는 실효가 없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탐색한 21개의 독립 변인 중에서 적게는 8개, 많게는 13개의 유의한 변수를 중심으로 이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 변수 외에도 본 연구에서 탐색된 변수들을 반영한 학생생활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새로운 모형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이론적 틀을 토대로 설정된 연구모형의 설명변량을 산출하여 유의도 검증은 거친 후, 유의한 변수들 간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는 구체적인 작업이 이뤄질 때에야 고교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공허한 주장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설명력을 갖는 변수와 종합적인 설명력을 지닌 모형은 효율성을 산출하는 중재 프로그램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일 때 이론의 적합성이 검증될 수 있는 모형이 정립되고 학문 후속세대들이 그 효과를 측정하여, 모형의 설명력이 지속적으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입 서비스에 적용되는 생태학적 접근은 학생 본인의 능력과 주변 환경의 기능이 생태체계의 지원으로 강화

될 수 있는 접점을 알려준다. 또 역기능이 순기능으로 전환되는 요인을 발췌할 수 있게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큰 제한점으로 조사대상자를 서울 소재의 인문계열 남자고등학생을 임의로 선정한 점이다. 비록 오염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한 학교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유의표집이었다 하더라도 비확률 표집에 따르는 조사자 편견과 대상자 편견 등에서 일반적인 방법론상의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제한점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여자고등학교나 남녀공학, 특수 목적고 등에 확대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학력과 생활수준은 남고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연구자들이 의도한대로 가외요인이 통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추후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연구의 비교 근거로 중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성별, 지역별, 계열별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고등학생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학편찬위원회(1992). *교육학대사전*. 서울: 교육서관.
- 강병세·김계수(1998). *통계분석을 위한 SPSSWIN EASY*. 서울: 법문사.
- 김미경(2000).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리진(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옥(2005). *부모-자녀간의 교류패턴과 중학생들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환(2005).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인(1999). *새 시대 교육에 대한 한 시작*. 한국교육연구소 여름 정책세미나 기초발제: 21세기 사회와 교육체계의 변화, pp.121-125
- 김애희(2007).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분석*.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2005). *자아개념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덕(1993). *서울시 중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실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행미(2005). *여고생의 자아존중감, 우울성향, 또래동조성과 흡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영(2007).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 자아개념, 정서지능과의 관계연구 :실업계여고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혜진(2007). *청소년의 성별, 가정 분위기, 의사소통 유형이 갈등해결방식 및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1997).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자료집.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pp.59-89.

- 민응규(2002). 대안학교 재학생들의 학교 만족에 관한 연구: 인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문혁준(2009).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정서지능, 사회적 능력,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7권 제2호, pp.1-13.
- 박소혜(1995).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현·장승민·권성우 역(2005). 정서지능. 서울: 시그마프레스.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 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동식(2002). 정서지능과 자아개념 및 학교 적응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4). 교육학 용어대사전. 서울: 하우.
- 서울시대안교육센터(2006). 서울시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성미옥(200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칭찬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상구(2000). 체육수업과 여가활동의 연계지도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미정(2008). 청소년의 중요타인 기대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종희(2001). 가정복지의 생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8호, pp.93-105.
- 윤종희·김리진·하수민(2006). 장애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2호, pp.149-163.
- 이건명(1985). 학교시설관리의 효율화. 교육연구, 제186권, pp.42-47.
- 이경자(2002). 또래상담 훈련이 여고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2005). 중·고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 이은재(2003). 서울시 도시형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02).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석균(1994). 정신분열증 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정신보건과사회사업, 제2권, pp.33-50.

- 정옥분(2003).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주환숙(2007).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열(2008). 청소년 태권도 수련자의 참여 동기와 수련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 2006. 10. 4일자 2면(칼럼) 기사 : 논술 비중 확대를 논술하시오.
-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Agresti, A. & Finlay, B.(1984). *Statistical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San Francisco: Dellen Publishing Company.
- Bronfenbrenner, U. & Crouter, A. C.(1983).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models in developmental research*.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History, Theory, and Methods*(Vol.1). NY: Wiley.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Madden, J. & Madden M.(2001). At-risk situations and conflict in public schools: Teacher awareness profiles. *The Journal of At-Risk Issues. A Joint Publication of the National Dropout Prevention Center and Network, Vol. 7 No. 3*, pp.453-467
- Ciarrochi, J. & Forgas, J. P. & Mayer, J. D.(2005). 정서지능. 박재현·장승민·권성우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 Olson, D. H.(1986). Circumplex model VII: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Vol. 25*, pp.337-351.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1985).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www.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보·통계자료.

ABSTRACT

An Analysis of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School-Life Satisfaction of General High-School Boys

Kim, Ae-Hee* · Yoon, Chong-Hee** · Kim, Lee-Jin***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significant predictors affecting the school-life satisfaction levels of 282 boys from a general high-school in Seoul, Korea. Analyses of data, using SPSS 15.0 WIN., indicated that the level of school-life satisfaction of a general high-school boys was moderate and that the Model V was the most powerful($R^2=52.6\%$). Our results further indicated that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satisfaction with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relationships with friends, parent-teacher relationships, agreement with the Korean belief in educational achievement, accommodation facilities available at the school, self-efficacy, and the academic atmosphere of the classroom, in that order. Furthermore, the effect of the microsystem were found to be the strongest($R^2=41.5\%$).

Key Words : school-life satisfaction, a general high-school, an ecological model

투고일 : 3월 15일, 심사일 : 4월 26일, 심사완료일 : 5월 17일

* Director, Korean Gifted-Child Education Center

** Professor, Dongduk Women's University

*** Senior Executive Director, Mind Brain Learning Center

